

더위 잡으러 가자~ 정읍으로!

칠보 물놀이장, 유아풀장·워터 터널·바다슬라이드 등 놀이시설 다채 정읍천 미로분수, LED 화려 '핫플' 등극...물빛축제, 게임·K팝 등 풍성

정읍시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물놀이 명소로 거듭난 정읍=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읍이 새로운 물놀이 명소로 떠오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랫동안 호남권 대표 명소가자 정읍의 대표적인 물놀이 시설은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물놀이 장소들이 개장을 해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5일 정읍시에 따르면 칠보 물놀이장(면적 2030㎡ 면적)은 다음달 18일까지 운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 인근에 자리한 칠보 물놀이장은 물테마 전시관, 인공폭포,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풀장과 유아풀장, 워터 터널, 워터스프레이, 바다슬라이드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함께 그늘막, 남태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완비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여기에 최근 시가지지를 가로지르는 정읍천과 어우러진 미로분수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바나 캠프'까지 문을 열었다.

정읍천 미로분수(규모 12m×36m)는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전국 최초의 복합형 바다분수로 음악분수와 물놀이, 거울 연못 등 세 가지 기능을 아우르고 LED 조명과 음악을 연계한 미로 형태로 설계됐다.

지난 6일부터 가동 중이며, 음악분수는 평일에 2회(오후 7시-8시), 주말에 3회(오후 7시-9시) 운영하며 10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정읍천 미로분수는 추추는 물줄기와 화려한 조명으로 주말마다 최대 2000여 명이 찾으면서 정읍의 핫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정읍시의 설명이다.

사바나 캠프 정읍은 최근 문을 연 민간 시설로, 허브원(정읍시 구방 1길 188-3) 내에 위치해 있다. 72개의 텐트와 어린이 수영장, 원형 수영장, 에어바운스 2개,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텐트 대여 시 놀이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 최대 500명이 찾고 있다. 깔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축제까지 더해 발길 이끌어=올해는 여름과 젊음, 물과 합합을 잇는 축제까지 예정돼 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물빛 축제가 그것이다. 낮에는 다양한 게임과 물놀이 등 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저녁 7시부터는 인기 가수들과 그룹의 공연이 펼쳐진다.

여름과 젊음,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EDM(Electronic Dance Music)과 함께하는 이 축제는 'MZ세대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축제에는 인기 그룹 '하이키', '던탈릭과 김효은', '크라잉넛', '육중완 밴드'가 참여해 정읍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안전관리 대책도 꼼꼼히=정읍시는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칠보 고원교와 산내 구절초교 등 5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또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안전요원을 선발하고, 인명 구조 요령, 안전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물놀이 시에는 급류 등 자연적인 위험 요소에 대



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조끼를 지참하지 않은 물놀이객에게는 비치된 구명조끼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구명환과 구명줄을 구비했으며, 읍·면·동 직원의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연락 체계를 유지해 안전사고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읍시의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에 유료시설을 이

용하지 못하는 피서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마음껏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에 유료시설을 이

“남원 임신부 원정 출산 끝”...공공산후조리원 착공

116억 투입 내년 상반기 완공

남원시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남원공공산후조리원(산후조리원) 조성의 첫 삽을 떴다. 산후조리원이 완공되면 남원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 23일 산후조리원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착공식은 최경식 남원시장,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영태 시의장 및 도의원, 시의원, 기관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 동부권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임신부들이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불편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 부지 확보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달 설계를 완료하고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산후조리원은 오는 2025년까지 남원시 고죽동 200-4 일원에 총사업비 116억원(기금 42, 도비 35, 시비 39)을 투입해 연면적 2400㎡,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사진관찰실, 모유수유실 등 전문적인 산후돌봄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2025년 완공예정인 최근 공사를 시작한 남원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남원시 제공>

특히 이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조리원을 넘어 맘카페, 마사지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자연친화적인 실내외 정원을 마련해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리조트 개념의 공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2주까지 가능하며 기본 이용료는 민간 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시민, 도민, 지리산권 주민 및 시민 자녀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 적용을 검토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공공산후조리원을 수도권 지역의 민간 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최신 시설로 갖춰 원정 출산을 막고 전북 동부권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시군과 연계,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확정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도 내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전주시에 8곳, 군산시에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옛 사진 찾습니다” 아카이브 구축

14개 읍면별 인터뷰 등 진행...생활사에 담긴 가치 발견

고창군이 고창의 옛 사진을 수집해 고창의 전통을 기록한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최근 고창군청 군수실에서 고창군의 기록관리사업의 일환인 ‘고창의 옛 사진 수집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환)’ 위촉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위촉식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선임직 위원 5명 등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고창의 옛 사진 수집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추진위원회 위촉과 주요 역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옛 사진 수집을 위한 정례회의 진행, 심의, 기록화 방안 논의, 옛 사진 공유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옛 사진 수집단을 운영해 14개 읍면별로 마을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인터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옛 사진 수집 추진위원들이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고창의 옛 사진 수집은 사라져가는 고창의 고유한 생활문화적 자료를 발굴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사업이다. 고창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고 사진에 담긴 고창의 역사와 주민의 생활사에 담긴 지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여름밤 소리여행’으로 더위 잊어요

남원시립예술단, 다음달 10일까지 국악·합창 매주 공연

남원시립예술단(예술단)이 지역민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해줄 고풍적 공연을 선보인다.

예술단은 사람의 광장 야외공연장에서 25일부터 다음달 10일 까지 3주 동안 매주 목·금·토 9일 간 약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여름 휴가철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무더운 더위를 타파해줄 열정 넘치는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 프로그램은 국악, 농악 합창 등 다양한 음악 장르로 구성됐다.

공연은 남원시립국악단의 공연인 민속악 갈라공연으로 막을 올리며, 남원 시립국악단의 민속악(판소리, 무용, 기악합주, 민요 등), 퓨전국악공연(관현악), 창극공연 등 6회, 남원시립농악단의 남원농악 판국악공연과 타악퍼포먼스 공연 2회, 남원 시립합창단의 합창 공연 1회 총 9편의 무대가 펼쳐진다. 단체별 자세한 공연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야외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우천 시 취소될 수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올 가을 고창 모양성제는 화합의 축제”

고창군, 축제 준비 실무회의...공연·체험 등 세대 조화 중점

고창군이 올해 고창모양성제 축제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은 전날 ‘제51회 고창모양성제(10월 9~12일)’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지역민들뿐 아니라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미

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축제 구성계획과 각종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을 논의했다.

올 가을에 개막할 ‘제51회 모양성제’는 50년간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군은 올해 축제도 활력 넘치는 축제에 성황

리에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은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읍성 내외 체험 프로그램, 51년 역사의 모양성제 전통 위에 MZ세대의 감성을 엮은 테마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는 “고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대와 문화가 모양성제에서 어우러지고 고창을 찾으시는 관광객에게 고창의 멋과 흥을 알리고 고창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도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3년경 5326	1	나주시 남평동 교촌리 29 2296㎡	전	463,792,000 463,792,000	주거나지용 이용중, 지목도상행지
	2	북구 금곡동 3 656㎡ [지상소수주택매각포함]	답	97,584,000 97,5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휴경지, 맹지
2023년경 72333	4	북구 금곡동 10 631㎡	전	88,340,000 88,34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북구 금곡동 11 521㎡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상소수주택매각포함]	답	87,007,000 87,007,000	공부상지목임, 현행 전으로이용중
	6	북구 충효동 80 1190㎡ [지상소수주택매각포함]	전	77,350,000 77,3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0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개> *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1. 매각조건
① 매각대상: 경주지방법원 임할부경
2. 매각기간: 2024. 8. 9. [공] ① 10:00 ~ ② 10:00
3. 매각결정일: 2024. 8. 16. [공] 14: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임할부경
5. 매각방법
① 임할부경에 비추어 기일당첨표에 서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남원시에 보증금을 함께 임할부경에 넣어 임할부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의 자기유보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임할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 각자의 지분을 명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부담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과 최고매수신청인으로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목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목세영수증과 등목세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국민주거개선법변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목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목세영수증과 등목세영수증 사본을 첨부하고, 국민주거개선법변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당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이나, 사적등기사항을 마친 원주민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임할부경의 열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정합 [소장]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임할부경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임할부경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양된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정합이 취소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강박신청이나 손해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경매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2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정현